

## 페놀 PCB 양면에 부품실장기술 개발 (주)금성사

금성사가 페놀기판(페놀 PBC) 양면에 부품을 실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동사의 생산기술 연구센터가 1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페놀기판 양면화 기술은 그동안 페놀기판 단면에만 부품실장이 가능했던 것을 특수코팅 점프 와이어를 이용, 양면에 부품을 실장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특수 코팅점프와이어의 정밀삽입기술, PCB(인쇄회로기판)동박의 정밀위치 결정 및 자압리드피치의 최적화 기술이 요구되는 정밀기술이다.

전체제품 PCB는 제품의 고성능 다기능화 추세에 따라 실장부품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실장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사는 이 양면실장 기술을 비디오 CD제품에 적용한 결과, 단면 PCB대비 면적을 40%나 줄일 수 있고 에폭시기판 대비 4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PCB 기판의 양면화에 따른 코넥터 등의 삭감으로 체결작업의 개선을 통한 작업성 향상 및 PCB회로설계의 자유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 [[ 대체 냉장고 양산 (주)금성사

금성사가 CFC(염화불화탄소)를 완전대체한 환경보호형 냉장고를 이탈리아 현지공장에서 연간 20만대씩 양산한다.

동사는 냉장고의 냉매는 HFC(수소불화탄소)134를, 발포제는 사이클펜탄을 사용해 기존 CFC를 완전대체한 냉장고를 개발, 이탈리아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냉장고 공장은 이에따라 기존 CFC 사용제품생산을 중단하고 환경보호형 제품생산체제로 전환했다. 국내업체가 CFC 대체냉장고를 연간 수십만대씩 양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사가 이탈리아 현지 공장 연구인력과 공동으로 30억원을 개발한 이 제품은 지구온난화 지수와 오존층과피 지수가 각각 0인 사이클로펜탄을 발포제로 사용한 3세대 환경보호형 냉장고이다.

동사는 EU(유럽연합)가 몬트리올의정서 발효시한보다 1년 빠른 내년 1월부터 CFC사용을 전면 금지키로함에 따라 이탈리아공장에서 이 제품을 양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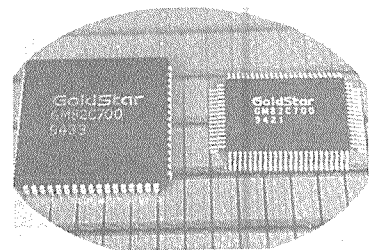
## 고속 5[디] 칩 국산화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대표 문정환)이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를 PC본체에 접속, 다중작업을 가능케 하는 고속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칩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이달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FAST SCSI I - II로 불리는 이 제품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와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7종의 주변기기를 본체에 동시접속시켜 최고 초당 10 KHz의 고속으로 정보를 전송하며 주변기기 상호간 작업이 가능한 다중작업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고성능 멀티미디어 환경구현에 적합하다.

특히 이 제품은 486급 이상의 PC에서 원활하게 성능을 발휘, 그동안 고급PC에서 문체시 뒀던 화상 및 음성처리 속도와 다중작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 체인(복수의 주변기기에 입력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로)에 의해 최대 256대의 주변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 국내 최초로 첨단 [[ 카드 상용화에 성공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IC카드를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여 최근 한국통신에 공급키로

계약을 맺고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이 IC카드를 전회기용 IC카드로서 금성일렉트론 반도체연구소(소장: 백광선)가 '93년 5월부터 약 1년여에 걸쳐 개발하여 성공한 것으로 약조건 속에서 작동여부를 시험하는 실장시험과 수개월간 실제로 시험운영한 실험시험 등의 신뢰성 실험에서 완벽한 품질로 평가받아 국내 반도체업체에선 처음으로 한국통신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여 납품기로 한 것이다.

이 제품은 불휘발성 메모리인 EEPROM Cell을 플라스틱 카드에 장착하여 제품화한 것으로 기존 IC 칩의 두께를 50% 이상 줄여 280미크론의 두께인 극초박으로 제작되었고 메모리 용량은 기존 자기카드에 비해 8배나 많은 1024비트(125자)의 정보를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으며 초당 9600비트의 고속으로 정보전송이 가능하다고.

정보의 훼손 및 복제가 불가능하여 기존 자기카드의 문제점을 보완한 이 제품은 메모리 용량의 70%는 전화번호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임의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는 양질의 부가되는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첨단 0.6-MICRON ASIC 개발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은 국내 반도체 업체 최초로 0.6-MICRON ASIC

공정 및 라이브러리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화하기로 하였다.

1984년 국내 최초로 ASIC사업을 시작한 금성일렉트론은 안정적이고 세계적 수준인 D램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다년간 축적된 설계경험과 美 컴파사사의 라이브러리 기술을 접목시켜 0.6-MICRON ASIC 기술을 완성시켰으며 금년에 개발된 기술은 선진회사들도 최근에야 공표할 정도의 첨단기술로서 선진기술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게이트어레이 GVGC650시리즈와 스텐더드 셀인 GVGC653시리즈, GVSC670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어레이 GVGC650 시리즈는 2층 금속 배선 구조 및 3층 금속배선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대 사용 게이트 수는 50만 게이트에 이른다.

구동 전압은 3.3V와 5V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3V 인가 시 소비전력은 1.3uW/gate/MHz로 5V 인가시의 3.6uW/gate/MHz에 비해 소비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휴대용기기 등의 저소비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 본공분석시스템 개발 삼성전관(주)

삼성전관은 3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2년 4개월의 연구 끝에 분광분석시스템 「오스마」시리즈를 개

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검출기에 유연성이 뛰어난 광섬유를 채택, 빛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분석 측정기기로 용도 및 분광기 형식에 따라 6종류로 분류돼 있으며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원적외선에 이르기까지 200~1,100나노미터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풍부한 응용프로그램을 내장, 광원의 색좌표 밝기 연색지수 색차 반사율 투과율 및 흡수율 등을 측정할 수 있고 분석대상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광 색채의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동사는 이 제품이 기존의 컬러 영상현미경과 결합시킨 복합적인 측정시스템으로 광학관련 연구분야, 반도체의 플라즈마 분석, 가전 디스플레이분야, 화학분석분야, 페인트 도료 및 섬유인쇄분야의 색채관리, 의학분야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 CDT 국산화 삼성전관(주)

삼성전관(대표: 윤종룡)이 CAD/CAM(컴퓨터 설계·생산)용으로 사용가능한 20인치 모니터용 컬러브라운관(CDT)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동사는 2년간의 개발기간 끝에 최근 해상도 0.31도트피치급에 1.680×1,280픽셀, 더블포커스시스템을 적용하고 무정전·무반사

처리한 20인치 CDT를 개발. 최근 시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20인치 CDT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모니터에 채용가능해 기존 카드캠용으로 수입돼온 CDT를 완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천진에 TV · VCR 공장 건설 삼성전기(주)

삼성전기는 중국 천진시에 TV VCR부품 합작 생산공장을 건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이 합작공장은 모두 2천만달러가 투자돼 지난 6월 부지 3,500평 규모의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끝내고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공장은 내년까지 TV 및 VCR용 튜너를 연간 250만대, VCR용 드럼 100만대, 헤드 및 정밀모터 각각 400만대, 컴퓨터용 스피들모터 200만대씩을 각각 생산하고 오는 96년까지 생산량을 2배이상 늘릴 방침이다.

삼성전기와 중국의 천진 무선전원건오창의 합자비율은 80대 20이며 합작회사인 천진삼성유한공사의 자본금은 500만 달러이다.

이 회사의 매출은 올해 1,500만 달러가 예상되며 오는 96년까지는 8,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 무선방법 경보기 개발 대릉정밀(주)

무선통신기 생산업체인 대릉정밀(대표: 권성우)이 무선방법경보시스템(모델명: SAVER500)을 개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시스템은 무선형으로 설계돼 기존 설비의 변경없이 설치 및 이전이 용이하고 강아지, 쥐 등 애완동물은 감지하지 않는 첨단 적외선 열감지기를 장착해 동물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도둑의 침입시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경찰서, 이웃집 등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자동 송신하는 자동전화 통보기능이 있으며 리모콘으로 원거리 경보작동과 해제를 할 수 있어 노약자를 위한 실버 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내에 사람이 있어 시간대별로 경보설정이 가능하며 월간유

지관리비가 없어 가정이나 중소형 상점에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자동차 전장사업 본격 참여 대우전자(주)

자동차의 편리성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첨단 전자장치 개발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자동차 전장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대우전자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차세대제품 연구소내 전장개발팀을 전장사업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개발전담인력을 20명에서 30여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20명으로 구성된 사업화팀을 신설. 자동차용 전자장치 개발 및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전자 자동차용 항법장치를



비롯해 미끄럼 방지제동장치(ABS), 자동 온도 조절 장치(ATC), 엔진제어장치(ECM), 에어백 충돌감시 및 제어장치 등 첨단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지도(Digital Map) 상에 자동차의 현재 위치 및 주행 방향이나 속도에 따라 계속 이동되는 위치를 표시해주고 목적지까지 가는 도로에 관한 각종 정보를 비롯해 관광가이드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첨단 자동차 길 안내장치를 최근 한국전자전에 출품, 크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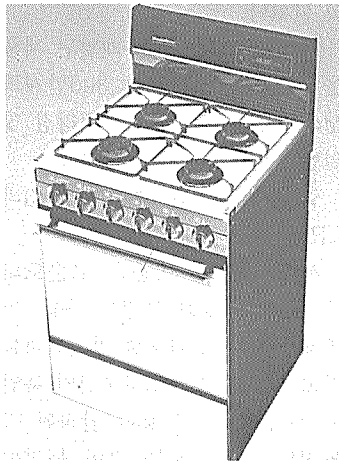
**「미러 디자인」 가스오븐렌지 개발**  
**대우전자(주)**

대우전자의 미러 디자인 가스 오븐렌지(모델명 : DOR-630P/N)는 전면 도어부분을 거울로 처리, 평상시에는 외관이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일뿐만 아니라 주방이 넓고 밝아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조리할 때는 내부가 투명하게 들여다 보여 조리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오븐부 내용적이 국내 등급대비 최대용량인 62L로 많은 양의 요리를 한꺼번에 조리할 수 있으며, 국내처음으로 원적외선 조리방식의 대형 세라믹 그릴버너를 채용하여 오븐열과 원적외선의 복합작용으로 조리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표면은 타지 않으면서 속은 골고루 익혀주고 음식

물의 수분증발을 막아 숯불구이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제품은 통닭구이 전용 바베큐 기능과 오븐 내부의 자동온도조절 기능, 자동청소 기능, 오븐열로 식기를 건조시켜주는 위생 그릇보관함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요리의 종류 및 크기, 두께에 따라 오븐선반 높이를 1단에서 8단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다.



**첨단 기능 팩스 개발**  
**대우통신(주)**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은 기록지말림방지 및 자동송수신 등 첨단기능을 갖춘 60만원대 보급형 팩시밀리(모델명 DF-1073)를 개발, 이달 중순께 본격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출시한 「DF-1070/71」 등 보급형 「떠아모」시리즈의 연속도넬로 선보이는 「DV-1073」은 실용성을 배가한 새로운 디자인에 종래 고급기종에

만 채택되던 각종 첨단기능을 갖추으로써 가격대비 성능을 한층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원고를 수신하거나 복사할때 기록지가 말림으로써 사용과 보관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록지 말림 방지 기능과 원고를 송수신할 때 상대방 팩스로부터의 송수신 신호음을 판단,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기능 등 고급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원터치 및 단축다이얼로 최대 198개의 상대방 전화번호를 등록,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과 원하지 않는 서류나 각종 광고물 등의 팩스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기록지를 절감할 수 있는 송신처 선택 수신 기능도 지니고 있다.



**중국 인드, 사우디에 합작법인 설립**  
**대한전선(주)**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이 내수시장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내년엔 3개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섰다.

동사는 중국 북경을 비롯해 인

도 하라나,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등 3개 지역에 합작법인을 설립, 내년 중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외시장진출은 그동안 약화됐던 수출경쟁력이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데다 해외투자여건도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동사는 중국 북경에 1,200만 달러 자본규모의 북경대경통신전람유한공사를 설립, 내년 상반기 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경광통신공사 중국통신건설총공사 등 5개 중국회사와 합작한 북경법인은 앞으로 총 3,000만 달러를 투자, 전력용 고압케이블과 통신용 케이블을 생산, 현지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인도 하라나에 일본도멘사, 인도 델톤 케이블사와 3국 합작으로 설립한 TDT 코퍼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품생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1,500만 달러가 들어간 하라나 공장에서는 SCR 로트 등 전선 재료를 주로 생산, 인도 지역 케이블업체들에 보급하게 된다.

또 올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현지 합작법인인 사우디-대한 케이블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49%의 비율로 자본참여하고 있는 리야드 공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2,300만 달러를 들여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이 공장을 통신케이블 전문생산공장으로 육성할 것으

로 알려졌다.

### 고성능 알칼리 전지 개발 로켓트 전지(주)

로켓트전지는 자체부설연구소에서 1년간의 연구 끝에 성능이 기존 제품보다 20% 가량 향상된 신형고성능 알칼리전지(상품명 알카라인 슈퍼)를 개발, 상품화했다고 밝혔다.

로켓트전기는 새로 개발된 제품을 이달부터 월간 약 300만개씩 생산, 기존제품과 함께 대리점 및 일반소매점 출하를 시작했다.

출하가 시작된 제품은 LR3과 LR6의 두가지 규격이다.

새로 개발된 제품은 고순도의 음·양극 활성화 물질을 사용, 기존제품에 비해 월등한 방전효과를 갖고 있으며 고전도성물질인 흑연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작동전압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새로운 봉입방법을 채택, 누액방지력이 향상 됐고 방포막을 두어 건전지내부의 가스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성을 높였다.

### 하이파이 오디오용 프론트 로딩 데크 롯데전자(주)

롯데전자(대표 : 오용환)가 하이파이오디오용 프론트 로딩 데크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롯데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1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해 최근 프론트 로딩 데크메커니즘(규격 : LFD-1)을 자체개발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월 2만개씩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사가 자체기술로 개발한 이 제품은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해온 데논(DENON) 메커니즘 타입의 침단데크로 흑타입의 조립법을 적용, 생산성을 높였으며 지금까지 유통되는 여타 업체의 데크제품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롯데전자측은 이번 프론트 로딩 데크의 자체 개발로 하이파이오디오시스템의 크기를 대폭 줄일수 있는 데다 고장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CDP용의 프론트 로딩 타입 데크(제품명 LCM시리즈)를 자체 개발한 롯데전자는 이번 하이파이용의 데크개발로 프론트 로딩부문에서의 제품라인업과 기술축적이 가능하게 됐다.

###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 개발 쌍용컴퓨터(주)

쌍용컴퓨터(대표 : 장근호)는 전력 및 소모품 등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60만원대의 레이저프린터(모델명 : 레이저아트)를 개발, 보급형 레이저프린터 시장에 진출한다.

전기료를 최대 12분의 1로 줄여 사용할 수 있는 초절전기능과 주요 소모품인 토너 1세트당 15,000매를 인쇄할 수 있어 소모품 비용

을 종전의 3분의 1로 줄인 이 프린터는 6PPM의 속도와 300DPI의 해상도를 지니며 메모리를 기본 2MB에서 10MB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또 출력속도가 떨어짐없이 에메이션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 KS 등 7개 모드를 지원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로 문서를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특히 DOS 및 윈도우즈, 유닉스환경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 광미디어 주력사업 육성 SKC(주)

SKC는 출판 영화 등의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분야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생산 설비를 중국 등 해외로 이전, 오는 2004년까지 연간 매출액 2조원을 달성키로 했다.

SKC는 14일 창립18주년을 맞아 앞으로 5년간 5,600억원, 오는 2004년까지는 1조 7,500억원을 투자, 세계 초일류 필름 및 디스크 생산업체로 성장한다는 내용의 장기경영계획을 확정했다.

SKC는 이를위해 사내조직을 전략사업단위(SUB)로 개편, 의사결정권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주력사업인 필름분야는 산업용 필름 등 고부가가치형 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영화음악, 게임, 교육, 전자, 출판 등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 분야의 전문회사도 설립키로 했다.

### 컬러 TN급LCD 개발 한국전자(주)

컬러 표시가 가능한 단순 매트릭스(TN)급 액정디스플레이(LCD)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중소형 저급 LCD전문생산업체인 한국전자(대표 : 박정소)는 TN LCD의 표시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 2억 5,000만원을 들여 8가지 색 표시가 가능한 TN LCD의 상품화에 성공, 이달중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는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TN LCD를 하반기부터 시생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 제품이 본격 공급될 경우 전자제품의 단순표시 기능의 컬러화는 물론 중저급 LD의 고급화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제품은 컬러 필터를 채용하지 않고 LCD내부에 적·청·록 표시가 가능토록 특수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 서울대 도서관리용 시스템으로 한국컴퓨터(주)

한국컴퓨터(대표 : 한홍섭)는 최근 서울대의 도서관리용 시스템으로 Tandem NonStop Himalaya K1000 시스템과 주변기기 등 약 12억원 상당의 시스템을 공급했다.

서울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 도서 및 모든 정보자료의 입수, 정리, 목록, 검색, 대출업무는 물론 정보서비스, 출입통제 기능을 포함한 도서관 전산화 ▲ 각 서브시스템에 필요한 조회, 등록, 신청 등의 중복되는 업무에 관련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 도서목록, 상호대차 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LAN, Networking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컴퓨터가 공급한 Tandem NonStop Himalaya K1000 시스템은 최신 RICS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과 탠덤의 병렬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해 탁월한 가격대 성능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 수준의 성능과 광범위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탁월한 서버시스템이다.

또한 각각의 K1000 프로세서는 120MB까지 확장할 수 있는 32MB의 온보드 에러 교정 메모리, 512KB의 고속 캐시 메모리와 듀얼 인터프로세서 버스를 갖고 있다.

### 무선통신사업 강화 한국컴퓨터(주)

한국컴퓨터(대표 : 한홍섭)는 최근 무선데이터 운영장비, 무선데이터 단말기 등의 무선데이터 실험국 운용 장비를 데이콤에 공급하는 동무선통신 분야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사의 통신/네트워크

크지원부의 무선통신 전담팀에서 무선데이터 시스템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중에 있다.

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은 호스트-운영국, 제어국, 기지국 사이를 X.25나 TCP/IP, SNA망으로 연결하여 이들과 개인이 소유한 휴대용컴퓨터나 신용카드 조회기, GPS차량위치과악 수신기 등의 각 단말기와의 데이터전송을 가능하게 된다.

단말기와 기지국, 제어국 사이는 무선모뎀을 이용하여 연결되는데, 한개의 제어국은 최대 64개의 기지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망에 DATA TAC이라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휴대용컴퓨터나 차량단말기 등을 통해 호스트와 자유롭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DATA TAC라는 시스템은 무선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전용개발된 프로토콜로 라디오 패킷 방식으로 피크 시간에 300명 이상의 유저가 한 채널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 2000년 매출 1조 달성 현대전자산업(주)

지난 83년 전화기 생산업체로 출범, 10월 10일로 회사설립 11돌을 맞은 이 회사는 기존 주력사업 분야인 반도체 컴퓨터는 물론 위성통신 신가전 멀티미디어 등 첨단전자분야에 적극 진출키로 했다.

동사는 오는 2000년 매출액을

올해의 2조 1,000억원에서 423% 늘어난 11조원으로 끌어올려 종합 전자통신업체로 성장할 계획이다.

사업부문별 매출목표액은 주력사업인 반도체는 오는 2000년까지 5조 2,000억원, 정보통신은 2조원, 멀티미디어 및 신가전분야는 3조 8,000억원을 달성키로 했다.

동사는 이를위해 세계 10대반도체 메이커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 1기가 이상급의 차세대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고 비메모리반도체분야의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 미래형 제품의 기술확보와 시장선점을 위한 해외거점지역도 설치키로 했다.

멀티미디어분야에서는 비디오 CD와 PC를 기본으로하는 멀티미디어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을 확대하고 정보주문형비디오(VOD)용 기기인 셋업 박스(Set Up Box) 등을 세계시장에 수출키로 했다. 홈쇼핑, 뉴스, 영화, 오락, 예약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도 실시, 종합정보 통신업체로 발돋움할 방침이다.

## 1메가 싱크로너스 D램 개발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는 지난 10월 24일 16메가 D램 제조기술을 사용, 기존 제품과는 달리 3.3V의 저전압에서 사용이 가능한 2세대 1메가 싱

크로너스(Synchronous) S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전자는 이제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월 50만개씩, 오는 96년부터는 월 100만개씩 생산할 계획이다.

이제품은 메모리반도체가 비동기(Synchronous) 전송방식의 D램에서 동기방식의 S램으로 발전하는 최근의 기술개발 추세에 따른 첨단제품이다.

1메가 싱크로너스 S램은 미국의 AT & T, 모토로라 등이 최근 개발했으며 486이상급의 PC에서 주로 사용된다.

동사가 개발한 이 제품은 4층 폴리실리콘 및 2층알루미늄배선 등 16메가 D램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 최대 소비전력량을 150mA로 줄여 S램의 단점인 전류사용량 과다문제를 해결했다.

